

## 계속된 NFL 무릎 꿇기 시위에 트럼프 또 '발끈'

지난해 미국 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군 '무릎 꿇기 시위'는 올 시즌 NFL(미프로풋볼)에서도 이어졌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이애미 돌핀스의 케니스틸스와 앨버트 윌슨은 지난 9일 테네시 타이탄스와 벌인 개막전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다.

이 행위는 2016년 8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으로부터 시작됐다. 캐퍼닉은 당시 백인 경찰관의 흑인 사살 사건에 항의하는 취지로 국가 연주 중 한쪽 무릎을 꿇었다. 캐퍼닉이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후 NFL과 NBA(미프로농구) 일부 선수가 이에 동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선수들에게 '개××'라고 욕설을 하고 구단주들에게 이들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마이애미의 두 선수가 무릎을 꿇자 트럼프는 이번에도 즉각 반응했다. 그는 트위터에 '와우, NFL 첫 경기 시청률이 이미 별로였던 작년과 비교해 훨씬 더 떨어졌다. 선수들이 우리 국기와 국가를 위해 자랑스럽게 서 있으면, 시청률은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나빠질 것'이란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NFL 구단주들은 국민의례 참여 여부를 선수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되 국민의례를 하기 싫은 선수들은 라커룸에 머무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선수 노조와 합의 끝에 규정 시행이 늦춰진 상황이다.

무릎 꿇기 시위의 원조 캐퍼닉은 트위터에 '내 형제들인 스틸스와 윌슨이 흔들림 없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적었다. FA(자유계약선수)로 풀렸지만 두 시즌째 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캐퍼닉은 최근 나이키 30주년 광고에 출연했다. 이 광고는 일부 소비자가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에 휩싸였지만 큰 화제를 모으며 상업적인 성과를 거뒀다. AFP는 "이 광고를 온라인에 처음 내보낸 노동절 기간 나이키 매출이 전년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NFL은 10일 개막전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했다. ESPN이 전망한 올 시즌 수퍼볼 우승 확률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16.4%로 가장 높다. 패트리어츠의 전설적인 쿼터백 톰 브래디는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통산 최다 우승팀(6회)인 피츠버그 스틸러스(11.6%)와 지난 시즌 챔피언 필라델피아 이글스(11.1%)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우즈, 투어 챔피언십 출전 확정 ... 5년 만

타이거 우즈(미국)가 5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1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우즈는 10일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7언더파 263타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우즈는 이날 한때 선두에 1타 차까지 따라붙으며 2013년 8월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5년 만이자 PGA 투어 통산 80번째 우승을 차지할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고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하지만 우즈는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치며 페덱스컵 포인트 380점을 받았고 지난주보다 5계단 상승한 페덱스컵 랭킹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우즈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투어 챔피언십 출전하게 됐다.

우즈는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이 걸려 있는 페덱스컵을 두 번(2007년·2009년) 이상 들어 올린 유일한 선수다. 현재 페덱스컵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과 격차가 있어 역전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투어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우즈는 세 번째 페덱스컵 보너스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BMW 챔피언십을 마친 뒤 우즈는 "지난 몇 해 동안 부상 탓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올 시즌 건강하게 돌아와 투어 챔피언십까지 출전하게 돼 기쁘다. 마지막 대회인 만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즈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올 시즌 17개 대회에 출전한 우즈는 이번 대회를 공동 6위로 마치고 톱10 진입 경기를 6경기로 늘렸다. 이제 2017-2018 시즌도 한 경기 남았다. 빨간 티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우즈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토틀넘 커뮤니티 "손흥민 아버지 영입해야"

토틀넘 커뮤니티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26·토틀넘의 아버지 손웅정(56·SON축구아카데미 총감독) 씨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1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미국 SB네이션의 토틀넘 커뮤니티에는 '토틀넘 레비 회장이 손웅정 씨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이 올라왔다.

이 칼럼은 "손웅정 씨는 손흥민을 10대 시절부터 지도해왔다. 손웅정 아카데미는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슈팅 훈련을 하지 않고 볼 컨트롤 훈련에 집중한다."며 "그런 교육은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드러난다. 그는 볼을 가진 상황에서 토틀넘 선수 중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흥민은 드리블에 능숙하다. 왼쪽 측면을 질주할 때 볼터치도 완벽하다."며 "손흥민의 활약이 인정을 받은 데는 분명 아버지의 교육이 큰 몫을 했다."고 주

장했다.

칼럼은 "손웅정 씨는 선수를 지도하는 능력이 있다."며 "만약 토틀넘에 코치, 유소년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당장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받은 특별 훈련이 성장의 발판이었다. 손흥민은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저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축구 선배이기도 하고, 축구 스승이기도 한데, 다르게 보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마트한 기능성 섬유 향수 hook LIFESTYLE FRAGRANCE

99% 향균/탈취효과로 후각을 괴롭히는 섬유나 신발, 공기중의 오염된 냄새를 제거하고 은은하고 독특한 향 그대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섬유향수!

대한민국 좋은제품 HIT500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히트500상품선정

- 섬유용
- 차량용
- 신발용
- 애완동물용
- 헤어용

출시 3개월만에 한국 유명백화점, 디자인샵, 면세점등 입점 완료!!

지구촌약국 EARTH VILLAGE PHARMACY 5161 Beach Blvd. #C  
 구입처 714.228.9212 Buena Park, CA 90621

점점 949.250.9500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hook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